

# 성교육 강사 학부모 교육중 발언 논란

### 도교육청 주최 도내 모 초등학교 학부모 성교육 학부모 “성희롱·조순가정 비하 소지” 문제 지적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학부모 대상 성교육에서 강사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외부 강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제주도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들을 위한 올바른 성교육을

주제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진행됐다. 제주도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마련된 이날 교육에 학부모 30여 명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것은 이날 교육을 맡은 강사의 발언이었다. 당시 교육에 참석했던 일부 학부모들은 강의 내용이 성희롱, 종교 편향, 조순가정 비하 등의 소지가 있다며 강사 자질 문

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제주도교육청은 19일 해당 학교를 찾아 관련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의 추천을 받은 뒤 강사 이력 등을 확인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우엔 그 과정이 달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자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의회는 외부 강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 부재를 질타하고 나섰다.

19일 열린 제3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부공남(제주시 동부) 교육위원은 “외부 강사에 의한 성교육에 적절치 못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민원을 잇따라 받았다”면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이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성교육 외부 강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 장애인 성폭행 60대 실형 법원 “중형 선고 불가피”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제주시에 있는 B씨 자택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종합장애 1급과 청각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집에 혼자 살고 있고, 타인과 의사소통이 힘든 점을 고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자신의 성욕구 해소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주상복합주택 사무실 화재

19일 오전 6시56분쯤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주상복합주택 1층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물 내벽 및 냉장고가 소실되는 등 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배추 수확 분주한 농촌 바람을 동반한 추위가 찾아온 19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농민들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도두항 유람선 재취항 어민-선사 법정다툼

### 법원,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어민 “최근 항고장 제출”... 선사 “재취항 준비 매진”

도두항 유람선 재취항 계획을 놓고 벌어진 지역 어민과 선사 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도두항을 이용하는 지역 어민 29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시가 A선사에게 내준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5일 기각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 사건의 진행으로 원고들에게 회복하지 못할 만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지역 어민 29명은 A선사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분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번 갈등은 A선사가 도두항과 사라봉을 오가는 480t급 유람선(승객 정원 399명) 취항 계획을 세우면서 불거졌다. A선사는 지난 2010년부터 도두항을 오가는 유람선을 운항해오다 경영난에 부딪혀 지난 2013년 유람선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A선사는 매년 허가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도두항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 권한을 취득해왔다.

A선사 관계자는 “원래 올해 내 재취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예상하지 못한 법적 공방으로 인해

운항 시점이 늦춰졌다”면서 “앞으로 시설 보강 등 재취항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도두항이 이미 낚시어선, 요트 등으로 가득이나 포화된 상태인데 유람선이 재취항하면 선박 접안 과정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도두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38척이다.

원고인단으로 참여한 한 주민은 “제주시 당국도 도두항의 포화 상태를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유람선마저 재취항한다면 기존에 도두항을 이용해온 선박들의 안전 문제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 제주출신 문성유씨 캠프 사장 취임

제주출신 문성유(사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 신입 사장에 오른다.



졸업했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문 실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방예산과장, 지식경제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국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거쳐 지난 1월부터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캠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문 실장은 지난 주 열린 캠프 주주총회에서 신입 사장으로 확정돼 20일 부산에 있는 캠프 본사에서 취임식을 한다.

문 실장은 제주시 출신으로 오현고(30회)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 월평동 살인사건 40대 여성 피의자 구속

‘제주 월평동 살인사건’ 피의자 A(4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에서 여성 DNA가 검출됐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여성 유전자(DNA)가 발견됐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DNA 대조 작업을 시도했지만, 피의자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DNA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시 월평동 한 주택에서 B(58)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진행된 B씨 부검 결과, 머리와 목 등이 여러 차례 흉기에 베어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 악성 민원·허위 고소 남발 부부 구속기소

수년에 걸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사실로 진정·고소를 남발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A(44)씨와 B(45·여)씨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앞세워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 등 관계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정·고소를 수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녀가 골수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헌혈증 수신장을 기부받아 도내 한 병원에 기부하고, 합기도 대회에 부정 선수 선발이 있었다며 진정을 넣어 대회가 취소되게 한 혐의와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 33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자녀에게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들 부부 자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서 보호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 2019 제주환경 10대 뉴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19일 발표된 2019 제주환경 10대 뉴스로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부실 작성 논란 ▷제주 동물테마파크 환경파괴·동물학대 논란 확산 ▷비저림로 멸종위기종 다수 발견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화 ▷

악성생활쓰레기 필리핀 불법수출사태 파문 ▷도시공원정책의 취지를 망각한 민간특례개발 추진 ▷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찬반갈등 격화 ▷지연된 음식물처리시설 이전 갈등·처리대란 우려 증폭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시판과 지하수 공수화정책의 위기 ▷지리지부친한 제주시설공단 추진 ▷대규모 연안파괴·도심난개발 촉진 제주신행만계획 고시 등이 선정됐다.

## 진정한 휴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향비료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향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 감귤묘목

- \* 유라실생 .....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 1,2,3년생
- \* 천혜향 (무독) ..... 2,3년생
- \* 궁천 .....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 1,2년생
- \* 하례조생 .....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 010-2699-2355